

## 세상의 끝에서 만난 벗들!

정호철 바오로 신학생  
인천교구 주안3동 성령성당

7월 한달 간 인천 성모병원 호스피스팀에서 체험을 하면서 아주 소중한고도 아름다운 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나이, 성별, 성격, 취향이 각각 서로 달랐지만 호스피스 환자분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마지막 인생의 레이스를 각기 다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그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호스피스 환자 중에 저에게 가장 깊은 인상과 감동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은 30년간을 한 가정의 성실한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1인 3역을 하시느라 마음 편하게 쉬어 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장사를 하시느라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좀 쉬고 살만하니까 암이 찾아왔고 여러 차례의 수술을 시행했지만 불행하게도 병은 더욱 악화되어 급기야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토스트 장사를 하느라 속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약으로 대충 먹고, 남은 재료가 아까워서 꾸역꾸역 먹다 보니 이렇게 아프게 되었어”라고 신세 한탄을 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편에 대한 원망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그분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희망을 북돋아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분은 물론 가톨릭 신자는 아니었지만 기도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셔서 손을 잡고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하루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과는 달리 오히려 마음속 깊이 어둠이 찾아 들어와 하느님에 대한 원망과 실망감으로 젖어 갔습니다.

‘하느님! 당신은 죽은 나자로도 살리신 분이신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당신은 절망하는 환우들에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하느님께 반항하는 마음(?)으로 병동에 계신 환우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적을 보여 주! 3주째가 지나갔습니다. 그분께서는 5일 정도 외출을 하셨다가 돌아오셨습니다. 외출이후 다시 병동에서 만났을 때는 처음 만나 뵈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말이죠. 아프면 아플수록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 느껴요. 이제 남편도 미워하지 않아요. 다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도록 노력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참으로 여러 감정이 물밀 듯 밀려왔습니다. 환자 분이 긍정적으로 변하신 모습에 기뻐지만 한편으로는 병이 악화된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이라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지금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시고 계시는 구나라는 생각으로 저는 몹시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분의 말씀은 저에게 그 동안 많은 환자분을 지켜보면서 ‘왜 하느님께서서 아픈 이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일까?’ 라는 의문과 원망에 대한 해답을 정확히 주셨습니다.

환우 분들이 자신의 상황을 순응하고 마음의 치유를 얻어 평온한 상태에 놓여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 자체가 온전한 치유의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여러 환우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겪는 신체적 아픔과 고통에만 집중하여 환우 분들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분노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호스피스 환우 분들이

죽음의 부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편안히 임종을 준비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하느님 품으로 되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 아닐까?, 바로 이것이 치유의 기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환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새기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벗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떠나가시는 환자분에게 좋은 추억이 되어 그분이 가시는 새로운 길에 말동무가 되고 벗이 된다면 그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의 벗인 어머니는 대세를 받으시고 8월 10일 밤에 선종하셨습니다. 저의 벗들은 체험이 끝난 지금 대부분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지금 남아 계신 저의 벗은 얼마 없습니다. 하지

만 오늘도 하늘에 있는 저의 벗들은 저 높은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 되어 남아있는 저의 벗들의 육체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 열심히 빛을 밝히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여호 1,9)

저는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팀에서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와 같이 '함께 함'이라는 것을,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호스피스 체험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김대균 교수님과 이은정 바올라 수녀님, 김 테레사 사회복지사 선생님, 민동기 선생님 그리고 호스피스팀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사)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후원회 가입 안내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우와 가족들은 우리 모두의 형제자매이며,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사랑해야 할 이웃들입니다.

호스피스는 환우들이 여생동안 삶의 질을 높이고 품위 있는 임종을 맞이하도록 도우면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안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풍요로운 삶과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고대합니다.

■ 후원금입금통장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301-724073 · 국민은행 994437-01-003288 · 농협 301-0067-5700-11  
· 신한은행 100-026-725929

■ 예금주 : (사)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 문의전화 : 02)2258-7039

여러분들의 따뜻한 작은사랑이 어떤이들에게는 희망과 평화입니다.  
입금 후 협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